

출판계는 차세대 출판 흐름에 대비해야

Ubiquitous

‘U-출판’ 즉 ‘유비쿼터스 Ubiquitous’ 출판 시대가 온 지도 수년이 지났다. ‘유비쿼터스’란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 환경을 즐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PC로만 알고 있는 컴퓨터 환경이 칩 하나만 장착하면 어떤 것도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사회전반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출판계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3월 20일, (재)한국출판연구소와 한국전자출판연구회가 주최하고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제30회 출판포럼 ‘유비쿼터스 시대의 출판 발전 방안’ 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렸다. 중부대 고경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포럼은 한국전자출판연구회장인 계원대 이기성 교수가 ‘유비쿼터스 시대의 한국 출판산업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하였다.

현재 컴퓨터 사용 변화 추이를 볼 때 오는 2005년이면 유비쿼터스가 PC를 앞설 것으로 보인다. 출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전자출판이다. 여기에는 전자책 출판 또는 전자(매체) 출판이 포함된다. 최근 우리도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업체의 매출도 성장하였다. 이 교수는 “2003년에는 200억~3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전자책 이외에도 책에 칩을 내장하여 참고 정리 및 재고 부수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과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지능형 휴대단말기(PDA 등)와 모바일 단행본, 모바일 교과서 등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출판계가 유비쿼터스 출판환경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는 방법은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고 물결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출판의 발전도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려면 일반독자뿐 아니라 네티즌과 모티즌(모바일 네티즌)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 전자출판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도 신구대 이창경 교수가 ‘한국 고전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현황과 과제’에 대해, 한신대 오현주 강사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POD 출판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

강경희기자